

구시로시립박물관

구시로시립박물관은 약 4,100 점의 표본, 자료, 디오라마, 영상 전시를 통해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의 구시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분야는 고고학, 지질학, 자연, 인류사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빙기에 있었던 동물의 이동, 구시로 습원의 형성, 아이누 문화, 그리고 일본열도의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이주해 온 초기 정착민들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구시로시립박물관은 구시로 출신 건축가인 모즈나 기코 (, 1941~2001년) 가 설계했으며, 1983년 준공되었습니다. 날개를 펼친 두루미를 본뜬 디자인은 구시로에 사는 희귀한 두루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시로와 빙기

구시로의 지형은 빙하 작용, 해수면의 변화 및 화산 활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습원과 다양한 해양환경 등 독특한 경관이 발달했습니다.

약 3만 년 전 최종빙기 중에서도 가장 추웠던 시기에 홋카이도는 사할린섬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매머드 등의 동물이 현재의 홋카이도로 건너왔습니다. 이 종들의 일부 (네발가락도롱뇽 등) 는 지금도 구시로 지방에 계속 서식하고 있습니다.

구시로 지방의 동식물

구시로 습원은 원시적인 저지대 환경입니다. 구시로 습원은 많은 희귀하고 고유한 동식물의 서식지입니다. 구시로 습원은 멸종 위기에 처한 두루미 (학명 : *Grus japonensis*) 무리가 일본에서 유일하게 서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빙기부터 살아온 종도 있습니다.

구시로 습원에는 1,000 종이 넘는 곤충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시마별박이왕잠자리와 물거미처럼 빙기에서 살아남은 종도 있습니다.

이곳에는 보통은 산악 환경에서만 발견되는 여러 종류의 식물이 우거져 있습니다. 구시로 습원의 시원한 기후와 여름에 이 지역을 뒤덮는 잦은 안개가 그 이유입니다.



마리모

담수조의 일종 (학명 : *Aegagropila linnaei*) 이 희귀한 구형으로 성장한 것을 마리모라고 부릅니다. 이런 실 형태의 녹조류는 물의 움직임에 따라 구형으로 자랄 수 있으며, 지름 30cm 까지 자라기도 합니다. 구형으로 성장한 마리모는 구시로 북부의 아칸호에서만 볼 수 있지만 실 형태의 녹조류는 구시로 습원 주변부에 있는 시라루토호와 도로호에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구시로와 태평양

구시로만은 지질학적으로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풍부한 해양생물의 집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구시로만은 해저협곡에 의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쪽에는 완만한 모래밭 해안선이 펼쳐져 있고, 동쪽에는 가파른 암벽이 있습니다. 모래로 된 해안지대에는 가자미가 번식하고 구시로 해저협곡의 사면에는 심해어가 서식하는 등 각각에 사는 해양생물은 전혀 다릅니다.



선사시대의 구시로

인류는 아마 최종빙기 때 홋카이도에 왔을 것입니다. 이 시기 홋카이도는 사할린섬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구시로에 정착하게 된 것은 약 10,000년 전 해수면이 상승하며 홋카이도가 대륙에서 분리된 후의 일로 추정됩니다. 구시로 습원보다 해발고도가 높은 대지 주변의 유적을 통해 구시로의 선사 사회의 발전을 알 수 있습니다. 약 140만 점의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물들은 조몬시대(기원전 13,000년 ~ 서기 400년)의 석축과 토기, 사쓰몬시대(서기 700년 ~ 1200년)의 철기와 금속기 등으로 박물관에 폭넓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세와 근대의 구시로

구시로가 오늘날처럼 번영하기 전 이 지역에는 아이누 마을이 있었으며, 에도시대(1603~1867년)에는 일본 상인들이 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근처에 '구스리바쇼'라고 불리는 교역 거점이 발달했으며, 에도시대 말기 혼슈에서 온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이 작은 교역 거점은 홋카이도 동부의 교통과 어업의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19~20세기 구시로 지방에서는 채탄업과 임업이 발달했으며, 목재를 일본 각지와 해외로 출하했습니다. 채탄업은 이 지역에서 탄층이 발견된 후 20세기 초에 시작되었습니다. 경제가 호황을 누리면서 인구가 증가했고 구시로는 1922년에 구시로시가 되었습니다.

아이누문화의 발전

아이누는 일본열도 북부 주변의 선주민족입니다. 아이누 문화는 자연 세계에 대한 경의 등 독자적인 관습, 언어,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이누는 수렵 채집 생활을 했으며, 남쪽으로는 혼슈, 북쪽으로는 사할린섬과 유라시아 대륙의 사회와 교역을 했습니다.

기원전 300년경부터 홋카이도에서는 일본열도의 다른 지역과는 다른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혼슈, 시코쿠, 규슈에서는 벼농사를 하게 되었지만, 홋카이도에서는 대체로 수렵채집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누 문화는 조몬 후기 문화부터 오호츠크해 주변 북방사회 등과의 교역, 접촉을 통해 발전했습니다.

아이누의 역사와 신앙은 영웅 서사시(사코로페)와 같은 구전문예를 통해 전해 내려왔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아이누어로 말하는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루미

두루미(학명: *Grus japonensis*)는 일본에서 번식하는 유일한 두루미종입니다.

홋카이도 동부의 두루미는 일 년 내내 이곳에 머물지만, 유라시아 대륙의 두루미는 철새입니다. 두루미는 장수와 행복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일본 전통 예술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티브입니다. 두루미의 정수리 부분에는 붉은 피부가 드러나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그림을 그릴 때도 머리 부분에 붉은 모양을 그려 넣습니다.

에도시대(1603~1867년)에는 두루미를 동일본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획과 서식 환경 파괴로 인해 시간이 흐르며 두루미의 개체수는 감소했고, 일본에서는 20세기 초까지 멸종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1924년 구시로 습원에 서식하던 10마리 정도의 두루미 무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겨울철에 먹이를 주고 보호 계획을 실행하여 두루미의 개체수는 현재 약 1,800마리까지 증가했습니다.

이 한국어 텍스트는 일본 관광청에서 제작했습니다.

This Korean-language text was created by the Japan Tourism Agency.

